

관계적 · 능동적 주체로서의 자연

- 구약에 나타난 자연 이해

박지은 (한신대 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자연 이해의 난제
 - 1. 고전적 해석: 칼 바르트와 폰 라트
 - 2. 자연 개념의 부재
- III. 구약에 나타난 자연 이해
 - 1. 자연과 인간
 - 2. 자연과 하나님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4.12>

• ABSTRACT •

Nature as a Relational and Active Subject - Nature in the Old Testament

Zion Park (Research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construct the Old Testament's understanding of nature not as a traditional passive object but as an active and relational subject. Hebrew possesses no single term corresponding to the modern notion of 'nature,' and creation itself appears as a multilayered concept encompassed by various verbs such as *ברא*, *עשה*, and *יצר*. This linguistic and conceptual structure suggests that nature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mere backdrop but withi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God, humanity, and the world. Human beings display an ambivalent posture, simultaneously dependent on nature and fearful of it. Nature both supports and threatens human life, while also possessing its own vulnerability. The sabbatical-year regulations in Ex 23 and Lev 25 demonstrate that nature is an acting subject requiring 'rest,' and the prophetic books emphasize an ethical correlation in which human sin directly results in the devastation of nature. Furthermore, nature is shown to be more than a created object; it functions as a theological agent endowed with emotion, response, and will. Accordingly, the Old Testament presents the relationship among God, humanity, and nature not as a separated or hierarchical structure but as an ontology woven through mutuality, continuity, and relationality.

Key words: Nature, Creation, Relationality, Ambivalence, Being-with

I.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심화되는 생태 위기 속에서 신학은 다시금 ‘자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생태계 파괴, 기후 재난, 생물 다양성의 붕괴는 단지 과학적 ·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신학적 시각의 전환을 촉구한다.¹⁾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 ‘자연’은 오랫동안 수동적 객체로 간주되었으며, 그 자체의 주체성이나 신학적 의미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시각은 히브리 성서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자연 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구약성서의 자연관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호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창조 기사 속에서 자연을 복종시키고 폄하하는 태도의 원인을 보았다.²⁾ 성서 본문이 자연 또는 환경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은, 특히 지난 50년 넘게 논의되어 온 린 화이트(Lynn White Jr.)의 논지³⁾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린 화이트의 관심은 구약 본문 자체, 특히 창조 기사 그 자체라기보다 그 본문의 수용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간-자연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제는 이후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1) 최근 신유물론을 중심으로 비인간 존재의 행위성과 윤리적 위상을 재조명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비인간 존재들이 지닌 생기와 율동, 역량과 능동성”을 강조하며, “윤리의 토대를 인간에서 자연으로 확대”하려는 방향을 제시한다. 강성영, 이상철, “신유물론 시대에 응답하는 기독교윤리 -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211(2025), 96, 113.

2) Max Horkheimer/ Theodor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estschrift Friedrich Pollock zum 50. Geburtstag (Amsterdam: Querido Verlag, 1947).

3)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 (1967): 1203-1207; Christof Hardmeier/ Konrad Ott, “Biblische Schöpfungstheologie”, in: Konrad Ott, Jan Dierks und Lieske Voget-Kleschin(ed.), *Handbuch Umweltethik*, (Stuttgart: J.B. Metzler, 2016), 183-189을 참조하라.

주체가 되었다. 그는 창 1:26-28에 나타난 ‘정복’(שָׁפַד/카바쉬) 및 ‘다스림’(נָטַר/라다)의 언어를 생태 위기의 신학적 기원으로 지목하면서, 구약성서가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대상화하고 도구화했다는 논의의 기점을 마련하였다. 즉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dominium terrae), 동물에 대한 지배 명령(regnum animalium),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개념적 이분법을 오늘날의 생태학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후 ‘기독교 자연관’에 대한 환경 윤리적 반성이 신학 전반에 큰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의 이러한 지론에 대한 찬반양론이 일어났는데, 창 1:26-28의 정복과 다스림의 표현을 진지하게 ‘폭력 행사’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despotism). 이를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약화시키거나 회색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었다.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표현이 ‘돌봄과 관리’를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인간은 땅을 관리하고, 돌보고, 경작하고 가꾸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stewardship).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 정복과 다스림이 어느 쪽으로든 실제 지배에 대한 과제 또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보호받는 것에 대한 ‘약속과 보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인간은 야생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해야 했고, 그 터전을 종종 어렵게 확보해야

4) Manfred Weippert, “Tier und Mensch in einer menschenarmen Welt: Zum sog. dominium terrae in Genesis 1”, in: Hans-Peter Mathys(ed.), *Ebenbild Gottes - Herrscher über die Welt: Studien zu Würde und Auftrag des Mensch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Verlag, 1998), 55.

5) 배희숙,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통치(창 1:26-28) - 인간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새 관점,” 『장신논단』 49(2017), 61-83; Hermann-Josef Stipp, “Dominium terrae. Die Herrschaft des Menschen über die Tiere in Gen 1,26,28”, in: *Alttestamentliche Studien: Arbeiten zu Priesterschrift, deuteronomistischem Geschichtswerk und Prophetie*, BZAW 442 (Berlin: De Gruyter, 2013), 53-94; Jakob Wöhle, “Dominium terrae. Exegetische und religionsgeschichtliche Überlegungen zum Herrschaftsauftrag in Gen 1,26-28”, *ZAW 121* (2009), 183.

했다(슥 2:13-15; 렘 9:9-11; 10:22; 49:33)⁶⁾. 광야는 위험한 곳이었고, 인간은 아무런 권력적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력도 극히 작았다. 따라서 이른바 ‘지배 명령’은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 준다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창 1:26-28이 정말로 인간에게 자연 안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진술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구약성서의 자연 이해는 이처럼 단순히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서만 해석될 수 없다. 성서에는 ‘자연’이라는 현대적 개념이 부재함으로 인해 ‘창조의 개념적 연관성과 함께 자연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표현된다. 이에 본 논문은 자연에 대한 단순한 해석을⁷⁾ 거부하고 새로운 접근들을 수용 ·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구약에 나타난 자연 개념이 결코 단선적이지 않고, 자연은 그 자체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표현하며, 신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게 종교적 ·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제시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구약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인간-자연’의 삼중 관계가 고정된 위계가 아니라, 상호성, 연속성, 긴장성 속에서 공존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진 ‘관계적 존재(relationale Ontologie)’임을 논증할 것이다.

II. 자연 이해의 난제

구약성서는 종종 그리고 필연적으로 고대근동의 역사 이해와 비교 연

6) 본 논문에 제시된 모든 성경의 장, 절은 MT(히브리어 성경)를 따랐으며, 내용(한글)은 「개역개정판」을 인용하였다.

7) 이에 대해 멜라니 쾨름스(Melanie Köhlmoos)는 “순진한 신앙”이라고 비판한다. Melanie Köhlmoos, “Naiver Glaube? Schöpfungstheologie in ihrem altorientalischen und alttestamentlichen Kontext”, in: Markus Kleinert/Heiko Schulz, *Natur, Religion, Wissenschaft: Beiträge zur Religionsphilosophie Hermann Deusers* (Tübingen: Mohr Siebeck, 2017), 3-24.

구되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최초의 문명인 고대근동 문명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일부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서 3천여 년이나 지속되었고,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직접적 배경이자 고대 인도 종교”⁸⁾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약성서와 고대 근동의 역사적·문화적 연관 연구는 활발한 고고학 발굴과 함께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천여 년 동안 레반트에서 감지되고 이해되었던 자연에 대한 연구는 미미할 정도이다. 예를 들면 츠비켈(Wolfgang Zwickel)은 자연적 생존 조건, 지형, 기후학(기후변화), 지진학, 고식물학(환경고고학), 동물고고학, 지질학 등을 고려하여 연구하였다.⁹⁾ 이러한 고고학 연구의 자극을 받아¹⁰⁾ 성서신학에서는 사건 중심의 단기적인 역사 연구에서 점차 Annales 학파의 *longue durée* 개념에 따른 환경사적 접근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적 연구를 위해 역사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방법론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 최근 여러 (학제 간) 연구 프로젝트들은 성서 본문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생태학적 맥락을 밝혀 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¹¹⁾ 새로운 주석 시리즈인 Earth Bible Commentary

8) 주원준,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고대근동 3천 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22), 5.

9) 츠비켈에 따르면, 성경에는 300종이 넘는 식물과 동물들이 언급되며, 그 중 많은 종들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또한 200여 개의 용어가 레반트 지역의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기후학적 특성을 묘사한다. Wolfgang Zwickel, *Einführung in die biblische Landes- und Altertumskund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2).

10) “자연환경의 고고학: 근동의 고고식물학 및 동물고고학”(“Archaeology of the Natural Environment: Archaeobotany and Zooarchaeology in the Near East”)이라는 타이틀의 세션은 적어도 2012년부터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ASOR) 연례 회의의 정기 세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7년 이후에도 계속 개최되어 왔다. 상세 내용은 <https://www.bu.edu/asor/news/2013/02/annual-mtg-recap.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DNI Bible(Dictionary of Nature Imagery of the Bible)에서 출판한 책, Mark J.

는¹²⁾ 성경 각 권이 제기하는 생태학적 질문들을 특별히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자연과 자연 개념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긴 했지만, 구약성서 연구는 여전히 이를 ‘환경적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뽑을 수 있겠으나, 그 첫 번째는 바르트와 폰 라트 같은 학자들의 이분법적 해석을 들 수 있다.

1. 고전적 해석: 칼 바르트와 폰 라트

칼 바르트(Karl Barth) 이후로 창조에서의 하나님 활동과 역사에서의 하나님 활동 사이의 개념적 이분법은 구약성서 연구에서 ‘자연’을 다루기 어렵게 만들었다. 바르트에게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중심을 이루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계약의 완성이고 구원의 역사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계약 수행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이며,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라는 것이다.¹³⁾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도 바르트와 같이 자연을 구원사의 보조 기능으로 이해한다. 그는 시편과 신명기 그리고 제 2이사야의 찬양 속에도 창조신앙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창조 그 자체를 위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며 [... 따라서] 창조신앙은 예언자의 눈

Boda/ Dalit Rom-Shiloni(ed.), *Crossing borders between the domestic and the wild: space, fauna, and flora* (London: T&T Clark, 2024)을 참조하라.

12) Bloomsbury에서 출판된 Earth Bible Commentar 시리즈를 참고하라. <https://www.bloomsbury.com/us/series/earth-bible-commentary/>

13)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1. Die Lehre von der Schöpfung* (Zol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57), 103, 258.

증이나 메시지의 사용에 있어서 [구원사를 보충해주는] 보조적 기능만을 수행”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로써 이 둘은, 자연을 구속사적 드라마의 ‘배경 무대’ 정도로만 이해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관에 내포된 우주론적 함의들은 더 이상 질문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자연과의 연관 속에 있다는 사실과,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적 전개와 경험의 가능성을 비로소 정초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만든다. 이에 대하여 구약학자들은 이미 많은 비판과 반박을 내놓았다.¹⁵⁾

최근에 사라 키피(Sara Kipfer)는 역사와 자연은 우위를 구별 짓는 개념이나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동등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는 사회와 자연 사이의 관계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현대적 범주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관(Naturvorstellung)과 사회개념(Gesellschaftskonzept)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고대근동의 세계관에 대한 질문은 신학적, 종교적, 인류학적 관점 모두에서 중요하다.”¹⁶⁾

‘창조와 피조물’처럼 ‘역사와 자연’은 히브리 성서 내에서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구약학계는 자연을 역사와의 관계성 안에서 뿐만

14) Gerhard von Rad, “Das theologische Problem des alttestamentlichen Schöpfungsglaubens”, in: Gerhard von Rad,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eologischer Bücherei 8* (München: Kaiser, 1958), 136-147.

15) Bernd Janowski, “Das Doppelgesicht der Zeit: Alttestamentliche Variationen zum Thema ‘Mythos und Geschichte’”, in: M. Grohmann/Y. Zakovitch (ed.), *Jewish and Christian Approaches to Psalms* (Freiburg: Herder, 2009), 113-133.

16) Sara Kipfer, “Es freue sich der Himmel und die Erde jauchze ...”(Ps 96,11), in: I. Fischr/ M. Welker(ed.), *Natur und Schöpfung, Jahrbuch für biblische Theologie 3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29-30.

아니라, 더 나아가 능동적인 신학적 행위체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보인다. 오딜 한네스 슈테크(Odil Hannes Steck)에 따르면, 구약성서 본문은 세계 창조와 기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 즉 사물의 질서와 우연적 현상 그 자체를 다룬다.¹⁷⁾ 그는 구약의 창조 본문의 주된 관심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준·자연과학적 · 유전학적 정보 제공에 있지 않고, 오히려 창 1-11장, 시 104:5-9, 잠 8장에 나타나는 현재의 경험 세계의 심층 차원을 진술하고, 세계와 인간 전체를 위한 기본 조건들(Grundgegebenheiten)과 근본 규정들(Grundbestimmungen)을 밝히려는 데에 있다”고 본다.¹⁸⁾ 뒤 이어 오토마 킬과 실비아 슈로어(Othmar Keel, Silvia Schroer)도 ‘자연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슈테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룬다. 그들은 “창세기 1장의 인간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창조 이야기는 [...] 그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나야 하며, 창 2장, 시편 104편, 욥기 38-39장, 잠언 8장 등과 같이 자연의 고유한 권리와 공간을 인정하는 덜 공격적인 본문들로 대체되거나 적어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

2. 자연 개념의 부재

두 번째 문제는, 구약성서에는 ‘자연’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없다는 것이다. 자연(自然)이란 “한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이란 말처럼 인위(人爲)에 의하지 않고 천연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²⁰⁾을 뜻한다. 라틴

17) Odil Hannes Steck, *Welt und Umwelt* (Stuttgart: Kohlhammer, 1978), 116-122.

18) Odil Hannes Steck, “Zwanzig Thesen als alttestamentlicher Beitrag zum Thema: Die jüdisch-christliche Lehre von der Schöpfung in Beziehung zu Wissenschaft und Technik”, *Kerygma und Dogma*, 23 (1977), 283.

19) Othmar Keel/Silvia Schroer, *Schöpfung: Biblische Theologien im Kontext altorientalischer Religion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237.

20) 강사문, 『구약의 자연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40. 강사문은 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된 것은 자연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타연”이란 말과

어 nascor와 그리스어 φύσις도 ‘스스로 생긴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문자 그대로 자연이란 ‘스스로 있는 것’ 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구약성서에는 자연에 상응하는 개념과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 말할 때, 종종 하나님의 일, 활동(시 19:2; 103:22; 104:31; 139:14) 또는 구체적으로 태양, 달, 별, 산, 바다, 강, 땅, 인간과 동·식물과 같은 개별 현상들, 즉 창조(물)의 현상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문제는 히브리 성서에는 ‘창조’(그리스어 κτίσις, 라틴어 creatio)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개념은 또다시 ‘창조하다’(בָּרָא/바라), ‘만들다’(עָשָׂה/아싸), ‘펼치다’(פָּתַח/라카), ‘형성하다’(צָרַף/아짜르), ‘짓다’(בָּנָה/바나), ‘날다’(נָחַף/알라드) 등 다양한 히브리어 동사들과 함께 연구되어진다.²¹⁾ 이처럼 구약성서 전반에서 ‘자연’ 및 ‘창조’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²²⁾ 이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자연, 인간 사이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구분할 수도 있다고 본다.

- 21) 창조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Bernd Janowski, *Biblischer Schöpfungsglaube: Religionsgeschichte - Theologie - Ethik* (Tübingen: Mohr Siebeck, 2023), 34-36을 참조하라.
- 22) 마인홀트는 “모든 초월적 실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모든 비현실적·초월적 현상들은 ‘창조’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 연구되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 Arndt Meinhold(ed.), *Zur weisheitlichen Sicht des Menschen. Gesammelte Aufsätze* (Leipzig: Evang. Verl.-Anst., 2002), 4; 그러나 키피는 이러한 개념과 용어사용은 현대적 개념과 사고이며, 이는 성서 속의 생각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즉 ‘창조’는 그 신학적 주제가 비교적 늦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개념과의 지속적인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 연구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Kipfer, “Es freue sich”, 27-28.

III. 구약에 나타난 자연이해

1. 자연과 인간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의존’과 ‘두려움’이라는 양가성을 지닌다. 제사장 문서(창 1:1-2:4a)와 야웨 문서(창 2:4b-3:24)가 해석에 대한 다소의 차이를 보일지라도,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는 인간이 자연을 형성하는 능력, 즉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인간은 자연을 가꾸고 경작하며(사 28:23-29), 자연으로부터 얻은 풍부한 수확물로 삶을 유지해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열매를 ‘먹는 것’(בָּרַךְ/아칼)은 곧 자연을 즐기고 누리하는 것이며, 이는 구약에서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요소이다(느 9:36; 사 1:19; 65:21; 렘 2:7; 29:28).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과잉으로 이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하거나(합 2:17), 성읍 포위 시 과일나무를 함부로 파괴하는 것(신 20:19)은 금지되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과는 상반되게 구약성서는 자연 재해나 그에 따른 기근과 식량 부족 등의 부정적인 자연 경험에 대해서도 묘사한다. 예를 들면, 화산 폭발(시 104:32; 144:5)이나 지진(암 1:1; 숙 14:5)과 같은 자연재해, 눈이나 우박과 같은 기후재앙 뿐만 아니라, 사자(잠 30:30; 렘 2:25; 애 3:10)와 곰(애 3:10)같은 들짐승(욥 5:22; 암 3:8)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초목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떼(암 7장, 요엘 1장)의 위협과 황량한 광야(신 8:15)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 즉 인간에게 자연이란 상처와 위협을 주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이다.

이러한 양가적 경험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자연도 인간에게 상처를 줌과 동시에 상처받는 존재이다. 즉 자연의 연약함(취약성)은 그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연

의 이러한 취약성은 인간에게 명확한 윤리적 태도를 요구한다. 땅을 포함한 가축 및 동·식물은 안식일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출 20:10; 23:10-12; 레 25장; 신 5:1-15).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10-12)

인간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하고, 그 해에는 어떤 경작도 해서는 안 되며,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한다. 즉 매 7년마다 자연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휴식을 즐겨야 한다. 인간은 이 해 동안 자연에게 어떠한 경작(노동)도 해서는 안 되며, 자연의 것을 임의로 착취하거나 과용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자연이 스스로, 저절로 내는 것만을 누려야 한다(23:12,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식년 규례는 현대적 관점에서 ‘자연의 안식권’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의 생산력을 무한히 착취하는 현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성서적 경고이다. 구약의 안식년은 땅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쉬고 숨을 돌리며”(출 23:12) 회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명시한다.²³⁾ 따라서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인간이 자연의 안식권을 침해한 결과이며, 이러한 구약의 자연 이해는 자연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23) 이시아는 “안식년의 주체는 땅”이라고 주장한다. 이시아, “구약의 땅과 사회윤리: 안식년과 회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2(2015), 283;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역, 『창조안에 계신 하나님: 생태학적 창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407-436; Elizabeth A. Johnson, *Ask the Beasts: Darwin and the God of Love* (London: Bloomsbury Continuum, 2015)를 참조하라.

넘어, 자연 자체가 향유해야 할 신성한 리듬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한다.

자연-인간간의 이러한 윤리적 규범 외에도 종교적 규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연 경험에 반영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자연현상이 신들 혹은 유일신의 활동으로 자주 간주되었으며, 자연은 하나님의 “작업/활동 공간”이다.²⁴⁾ 그 안에서는 심판과 징벌뿐 아니라 축복과 구원도 드러나며, 이는 자연의 빈곤(흉년)과 풍요(풍년)의 원인 또는 결과로 이어진다. 구약성서는 이러한 논리 구조를 자연-인간 사이에서 명확히 드러낸다. 인간의 죄는 자연에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호세아 4장에서는 땅이 애통한다. 그로 인해 그 땅 안의 모든 자연물(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빈곤과 쇠약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모두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기원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호 4,1-3)

여기서 자연의 애통은 수동적인 피해자의 울음이 아니라, 불의한 인간을 향한 ‘신학적 고발’이다. 즉 자연은 인간의 부정과 탐욕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식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상처받은 자연 주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관계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구약의 예언서에서 강조되는데, 예레미야 14장은 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1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지면이 갈라지고, 풀은

24) Kipfer, “Es freue sich”, 43.

말라버렸다. 이로 인해 들의 시슴과 니귀는 기근에 허덕인다(46절).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한다(7절, 20절). 이 가뭄과 기근은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죄는 이 극심한 자연폐해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이 때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자신들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교란하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는지를 인정하며 고백한다. 이러한 죄의 고백 속에는 조상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20절), 세대를 초월한 공동의 책임이 담겨 있다.

이처럼 구약성서에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명확한 주체-객체 구분이나 대립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기사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구절을 이용하여 자연의 맹목적 이용과 이에 따른 파괴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주체성과 정당성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위협은 그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공간과 기회도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은 대립적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공동-존재’(Mitsein)이자 ‘함께 창조된 존재’(Mitgeschöpf)로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해진다. 즉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생명을 보존하는 ‘자연에 의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위협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체와 객체, “이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원시적 존재 단위”²⁵⁾이며, 자연은 단지 인간의 대응물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결정적인 요소”²⁶⁾로 이해되어야 한다.

25) Steck, *Welt und Umwelt*, 112(Footnote 8).

26) Josef Haspecker, “Religiöse Naturbetrachtung im Alten Testament”, *BibLeb* 5 (1964), 119(Footnote 50).

2. 자연과 하나님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는 주로 창조와 창조된 것으로 환원된다. 창 1,1-2,4a에서는 아직 정돈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자연)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전세계를 묘사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존재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자 창조주로서 나타난다. 하나님(אֱלֹהִים/엘로힘)은 고대 신화에서처럼, 창조를 위해 어떤 적과 싸워 그것을 쟁취하거나 또는 다른 (여)신과의 결합을 통해 세계를 산출하지 않는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창 1:1-5을 MT에 따라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¹한 처음에 하나님(אֱלֹהִים)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²그러나 그 땅은 혼돈과 공허였다. 그리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떠돌고 있었다.

³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빛이 생겼다.

⁴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그것이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었다.

⁵그리고 하나님이 빛에게 낮이라고 불렀고 어둠에게 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첫째 날이다.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곧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일’과 ‘말씀을 통한 일’이다. 창 1,1-2,4a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은 동사 אָרַב(바라/창조하다)에서 나타난다. 이 히브리어 동사 אָרַב는 신학적 관점이 반영된 것인데, 그 동사의 주어로 대부분 하나님(엘로힘)만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적 창조의 행위일뿐만 아니라 이 신적 창조의 결과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거룩한 창조주를 강조한다. 이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머지 모

든 창조 행위들에서는 동사 לָבַח (아싸/ 행하다, 만들다, 생산하다)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1:7, 11, 12, 16, 25, 26, 31; 2:2, 3, 4). 이 히브리어 동사 לָבַח 를 통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로부터 비롯된 결과물로서 등장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구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의 본질적 구별만이 강조된다.

창 1:1-2에서 וַיִּבְרָא 동사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3절부터는 וַיִּבְרָא (바오메르/그리고 그가 말했다, 창 1:3, 6, 9, 11, 14, 20, 24, 26)로 창조작업이 시작된다. ‘말씀을 통한’ 창조,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자 빛이 거기에 있게 되었고,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말이 나오자마자, 빛이 생겼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라는 재료도 아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말의 본래적 속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중에 말하자 곧 동시에 밖으로 빛이 생기고 존재하게 된”²⁷⁾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한 결과가 실제로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 분의 심중, 곧 내면의 말로서 하나님의 희망과 의지, 바람이다. 이렇게 첫 창조물인 ‘빛’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바람과 의지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빛이 있기를 [바란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빛이 있게 해야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과 의지 반영으로] 빛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최초의 빛은 원초적인 자기 창조 행위이자 동시에 최초의 창조 행위로, 즉 빛의 창조로 이해된다. [빛이] 생겨남/발생함으로써(능동적 우주발생, intransitive Kosmogonie) 하나님은 동시에 외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타동적 우주생성, transitive Kosmopoiee).”²⁸⁾

27) Christian Link, *Schöpfung* (Neukirchen-Vluyn: Mohn, 1991), 42.

28) Jan Assmann, “Schöpfungsmymthen und Kreativitätskonzepte im Alten Ägypten”,

이는 9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그 물이 한 장소로 모이기를 바라대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른 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라대]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Jussiv(지시형)를 ‘명령’ 대신에 ‘희망과 바람’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하고 단독적인 말씀-창조를 더 명확하게 표현해준다. 이러한 말씀-창조(קָרָא)는 창세기 1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성서의 모든 본문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단 한 번만 일어나라고 소망 ·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확립하는 진술들,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성서 기자 자신이 살아있던 시대까지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술”이다.²⁹⁾

이러한 창조 개념을 통해 자연 개념이 명확해진다. 곧 창조된 것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창조되었든(בָּרָא), 만들어졌든(נִצְּרָה), 혹은 식물의 경우처럼 싹이 돋아났든(צָמַח) 그 출현 방식이 어떠한 간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바람)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 기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침내 인간도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בְּצַלְמוֹ בְּרֵאשִׁיתוֹ בְּרָא אֱלֹהִים)으로 창조되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우리(엘로힘)와 닮은 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새로운 ‘형상 개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세상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 곧 자연과 맺는 관계에 상응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하나님-자연 관계도 명확해지는데, 하나님

in: Rainer M. Holm-Hadulla(ed.), *Kreativität*, Heidelberger Jahrbücher 44 (Berlin, Heidelberg: Springer, 2000), 162.

29) J.W. 로저슨, R.W.L. 모빌리/민경진 역, 『창세기 연구 입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84.

은 자연 요소들 “안에서, 함께, 그리고 아래에”³⁰⁾ 자신을 구현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자연 요소들의 일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연은 분명히 구분된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시 24:1 이하; 시 78:69; 102:26; 119:90; 136:6-9; 잠 3:19-20). 세상과 그곳에 사는 야생 동물들(시 50:10-11)은 모두 그분의 것이며, 그는 세계(시 33:6-7; 104:1-45; 136:25; 145:15-16, 147:8-9)와 그 위에 있는 피조물들(시 36:7; 50:12)을 보존하신다. 즉 하나님은 자연(세계)의 소유자이며 그 존재와 공급을 보장하는 분이다.

그러나 자연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 ‘객체’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자연은 일련의 행위(Anthropopraxis)와 그와 관련된 감정(Anthropopathismus)의 주체이다. 즉 자연 및 자연 현상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³¹⁾ 이는 인간-자연의 관계에서 처럼 양가성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자연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파괴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며(신 4:26; 30:19; 31:28),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시 19:2) 찬양한다(시 89:6; 대상 16:31; 시 96:11-12; 69:35; 148:1-14). 언덕은 기쁨으로 띠를 두르고(시 65:13), 초원과 골짜기는 서로 환호하며 노래한다(시 65:14). 자연 전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반면 자연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표현한다. 땅은 흔들리고 요동하며, 산의 기초와 하늘이 야웨의 진노 앞에서 떠다(시 18,8; 삼하 22:8; 시 77:17, 19). 심지어 섬들도 떠다(겔 26:18). 땅은 애곡할 수 있으며(렘 4:28; 12:4; 호 4:3; 율 1:10),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사 33:9), 해와 달은 수치를 당할 수 있다(사 24:23).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시적 장치가 아니라, 고대 이스

30) Köhlmoos, “Naiver Glaube?”, 12.

31) Peter Riede, *Im Spiegel der Tiere. Studien zum Verhältnis von Mensch und Tier im alten Isra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라엘의 자연 이해가 자연을 감정 · 의지 · 반응을 가진 행위의 주체로 보았음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연은 반응과 응답을 통한 상호적 존재, 곧 상호적 관계임을 드러낸다.

IV. 나가는 말

자연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하나님 및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는 수세기에 걸쳐 변화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신학적 흐름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창조와 창조된 것’ 또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인간-자연’ 사이의 관계를 구약성서에서는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관계성과 연속성을 강조한다. 자연은 행위의 주체이고, 인간은 자연과 함께 된 존재(Mitgeschöpf)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관계 구조 안에서 엮는 자, 곧 관계의 근원이다. 이러한 구약성서의 하나님-인간-자연 이해에 대해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호세아 2:18이다. 이 구절은 MT의 직역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날에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곧]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활과 칼과 전쟁을 그 땅에서 없앨 것이며 그들이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의 대상은 그들, 곧 인간뿐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비교. 창 9:17의 כָּל־חַיָּוָה/모든 생물). 여기에서 자연은 단순히 보호받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과 “함께(ay)” 포함되는 존재

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간-자연 세계의 폭력 종식(평화)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통해 자연이 단순히 마지막 결과의 수혜자가 아니라, 언약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삼중 언약 구조로, 하나님-인간-자연 사이의 근원적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구약성서가 제시하는 자연 이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이나 배경적 무대로 축소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주체이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며, 그 관계 안에서 책임을 부여받은 윤리적 행위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 모두를 포괄하며, 이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자이자 언약의 주체이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연도, 인간도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³²⁾ 오히려 각각의 개체들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관통한다.

이러한 자연 이해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은 여전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구약성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인간-자연의 관계는 구원이 단지 인간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의 관계 회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구원은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획득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함께 회복되는 관계적 사건이다. 이는 기독교인의 삶이 단지 개인적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을 단순한 이용 대상이 아니라 신앙적 책임의 대상이자 관계의 상대로 재인식하게 하며, 이로써 생태적 책임을 신앙의 본질적 차원으로 이해하게 한다.

32) Kipfer, “Es freue sich”, 46-47.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자연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강성영, 이상철. “신유물론 시대에 응답하는 기독교윤리 -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211(2025), 95-125.
- 배희숙.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통치(창 1:26-28) - 인간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새 관점”. 『장신논단』 49(2017), 61-83.
-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역. 『창조안에 계신 하나님: 생태학적 창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이사야. “구약의 땅과 사회윤리: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2(2015), 277-305.
- 주원준.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고대근동 3천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22.
- J.W. 로저슨, R.W.L. 모빌리/민경진 역. 『창세기 연구 입문』.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Assmann, Jan. “Schöpfungsmythen und Kreativitätskonzepte im Alten Ägypten”, in: Rainer M. Holm-Hadulla(ed.), *Kreativität*, Heidelberger Jahrbücher 44, Berlin, Heidelberg: Springer, 2000, 157-188.
- Barth, Karl. *Die kirchliche Dogmatik III-1. Die Lehre von der Schöpfung*. Zollikon-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57.
- Boda, Mark J./ Rom-Shiloni, Dalit(ed.). *Crossing borders between the domestic and the wild: space, fauna, and flora*, London: T&T Clark, 2024.
- Hardmeier, Christof/ Ott, Konrad. “Biblische Schöpfungstheologie”. in: Konrad Ott, Jan Dierks und Lieske Voget-Kleschin(ed.), *Handbuch Umweltethik*, Stuttgart: J.B. Metzler, 2016, 183-189.
- Haspecker, Josef. “Religiöse Naturbetrachtung im Alten Testament”, *BibLeb* 5 (1964), 116-130.
- Horkheimer, Max/ AdornoTheodor W.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estschrift Friedrich Pollock zum 50. Geburtstag, Amsterdam: Querido Verlag, 1947.

- Janowski, Bernd, *Biblischer Schöpfungsglaube: Religionsgeschichte – Theologie – Ethik*, Tübingen: Mohr Siebeck, 2023.
- Janowski, Bernd, “Das Doppelgesicht der Zeit: Alttestamentliche Variationen zum Thema ‘Mythos und Geschichte’”, in: M. Grohmann/Y. Zakovitch (ed.), *Jewish and Christian Approaches to Psalms*, Freiburg: Herder, 2009, 113-133.
- Johnson, Elizabeth A. *Ask the Beasts: Darwin and the God of Love*, London: Bloomsbury Continuum, 2015.
- Keel, Othamr/Schroer, Silvia, *Schöpfung: Biblische Theologien im Kontext altorientalischer Religion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 Kipfer, Sara, “Es freue sich der Himmel und die Erde jauchze ...”(Ps 96,11), in: I. Fischr/ M. Welker(ed.), *Natur und Schöpfung, Jahrbuch für biblische Theologie 3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27-48.
- Köhlmoos, Melanie, “Naiver Glaube? Schöpfungstheologie in ihrem altorientalischen und alttestamentlichen Kontext”, in: Markus Kleinert/Heiko Schulz, *Natur, Religion, Wissenschaft: Beiträge zur Religionsphilosophie Hermann Deusers*, Tübingen: Mohr Siebeck, 2017.
- Link, Christian, *Schöpfung*, Neukirchen-Vluyn: Mohn, 1991.
- Meinhold, Arndt(ed.), *Zur weisheitlichen Sicht des Menschen. Gesammelte Aufsätze*, Leipzig: Evang. Verl.-Anst., 2002.
- Riede, Peter, *Im Spiegel der Tiere. Studien zum Verhältnis von Mensch und Tier im alten Isra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2.
- Steck, Odil Hannes, *Welt und Umwelt*, Stuttgart: Kohlhammer, 1978.
- Steck, Odil Hannes, “Zwanzig Thesen als alttestamentlicher Beitrag zum Thema: Die jüdisch-christliche Lehre von der Schöpfung in Beziehung zu Wissenschaft und Technik”, *Kerygma und Dogma*, 23 (1977), 277-299.
- Stipp, Hermann-Josef, “Dominium terrae. Die Herrschaft des Menschen über die Tiere in Gen 1,26,28”, in: Alttestamentliche Studien: Arbeiten zu Priesterschrift, deuteronomistischem Geschichtswerk und Prophetie, BZAW 442, Berlin: De Gruyter, 2013, 53-94.
- von Rad, Gerhard, “Das theologische Problem des alttestamentlichen Schöpfungsglaubens”, in: Gerhard von Rad,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Theologischer Bücherei 8. München: Kaiser, 1958, 136-147.

Weippert, Manfred. "Tier und Mensch in einer menschenarmen Welt: Zum sog. dominium terrae in Genesis 1". in: Hans-Peter Mathys(ed.), *Ebenbild Gottes - Herrscher über die Welt: Studien zu Würde und Auftrag des Mensch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Verlag, 1998, 35-55.

White Jr.,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 (1967): 1203-1207.

Wöhle, Jakob. "Dominium terrae. Exegetische und religionsgeschichtliche Überlegungen zum Herrschaftsauftrag in Gen 1,26-28," *ZAW* 121 (2009), 171-188.

Zwikel, Wolfgang. *Einführung in die biblische Landes- und Altertumskund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2.

논문투고일: 2026년 03월 16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08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구약성서가 제시하는 자연 이해를 전통적인 수동적 객체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관계적인 주체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구 신학은 오랫동안 자연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종속적 존재로 간주해 왔으며, 창 1:26-28의 '정복'과 '다스림'은 자연 착취의 신학적 근거로 종종 오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구약 본문 전반에 나타나는 복합적 자연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히브리어에는 '자연'에 상응하는 단일 개념어가 부재하며, 창조 역시 בְּרֵאשִׁית, בְּיָמָיו 등 다양한 동사들이 포괄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하나님-인간-세계의 상호적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경험하는 양가적 구조를 드러낸다. 자연은 인간을 돕는 존재이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스스로 취약성을 지닌다. 출 23장과 레 25장의 안식년 규례는 자연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 주체임을 보여주며, 예언서 전반은 인간의 죄가 자연의 황폐로 직결되는 윤리적 상관구조를 강조한다. 또한 자연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되어진 객체를 넘어 감정·반응·의지를 가진 신학적 행위자임을 확인한다. 즉 구약성서는 하나님-인간-자연의 관계를 분리·위계화된 구조가 아니라, 상호성·연속성·관계성으로 짜인 존재론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연은 능동적 주체이며,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윤리적 행위자이다.

주제어: 자연, 창조, 관계성, 양가성, 공존
